☞ 17면에서 계속

로 장질부사를 앓는 동네 전체를 놓고선 인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얻어다가 켜는 거는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마음의 촛불을 한 찰나에 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등을 켜고 손을 한데 모으고서는 관하고 앉아있으니까 모두 일체제불의 등이,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의 공등(空燈)이, 즉 말하자면 한마음의 등이 그냥 온 누리에 밝았답니다. 온 누리에 밝았으니 그 광력이 아픈 사람들의 동네까지 전부 미쳤어요. 그래서 세균을 그냥 둘이 아니게 하나로 뭉쳐서 그 의식을 다 안고는 깨끗하게 싹 처리를 해 버렸답니다. 그렇게 해 버리니 이틀 사흘이 지나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는커녕 전부 살아나더랍니다.

여러분의 촛대가 완전히 자리잡고 있어야 급하면 급한 대로 한생각에 불을 당길 수가 있는 거지, 촛대가 갖추어 있지도 않는 데다가 어떻게 불을 켜며, 그리고 그 불이라는 것도 없는 건데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불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촛대도 마련을 안하고 불을 켤 자가발전소도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이런다면 아무리 급해도, 팔자운명이라는 게 막 닥쳐와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다 마련을 해놨어야 해결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 촛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상님들 촛대의 불이 켜지겠습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둘 아닌 도리입니다. 가깝게 본다면 자기 깊숙한 마음 내기 이전과 또는 깊숙한 마음 속에서 촛대에 불이 당겨진다는 것과, 현실의 불이 당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죠. 가다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의 씨라는 거는 아무리 헤아릴 수 없이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느냐?' 이러죠. 내가 한다고 하니깐 안 되죠. 여지껏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간장공장에도 내가 있고, 방광공장에도 있고, 식도공장에도 있고, 공장마다 내가 있는데 내가 한다, 이거는 꼭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줘야지 하니깐 안 되죠. 한마음으로 들어져야 되는 건데, 우주 전체가 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고 있으니 그게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빼놓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빼고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나라는 게 있으면 절대로, 나 혼자 개별적으로 뭐를 하려면 되지가 않는다. 한마음이 듬뿍 들려야 우주간 법계에 한마음으로서, 산천초목도 전체가 한마음이 돼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촛불 하나가, 그 여인의 꺼지지 않는 마음의 인등 하나가 나라를 다 지키고 밝게 켰다는 얘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음이 나를 건지고 가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국민을 건질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고통 헤쳐갈 가르침을…

문 스님 저는 종교는 잘 모르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둘 곳 없어서 방황하는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종교를 찾아서 헤맵니다. 현재 저에게는 빚만 지는 씀씀이가 헤픈 남편과 이제 백일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전화가 빗발치는 현재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님들이 말리는 결혼을 해서 더욱 괴롭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옆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 역시 힘든 일이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인데, 저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내 탓이냐고 억울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부딪힐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에다가 돌을 친다고 소리나는 거 보셨어요? 돌을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고 사느라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불 모실 때에 오분향을 하죠? 첫째 '계향'의 뜻은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부모의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의 누가 되게 해서도 안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더욱 안되고, 그러면서 안과 바깥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으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정'에다 놓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이게 '계향'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지켜야할 것들도 생겼고 또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봤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바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또는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 뜻을 잘 헤아려 보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놓고 관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편하게 되는 길이며 더불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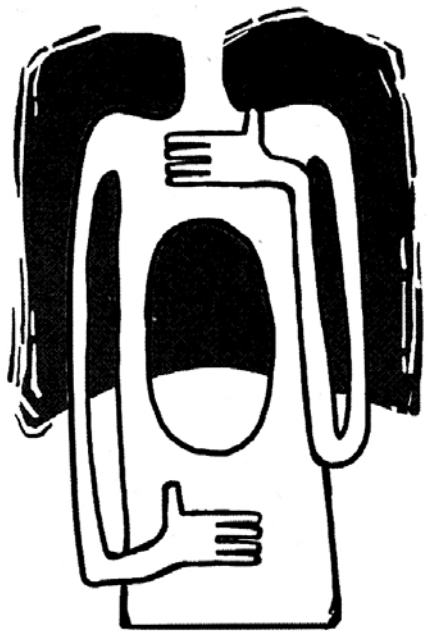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생각에 우주 · 만물 다루며 한마음에 불국토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세상에 없어선 안 될 귀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스님처럼 보인다고 싫어해

문 전생의 무슨 인연 때문인지 남편이 화 잘 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를 편하게 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불교에 귀의한 이후 스님의 법어집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제 딴에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남편은 스님처럼 보인다고 짜증을 내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공부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할까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답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절에 다니면서 남편도 굶게 하고 자식들도 굶게 한다면야 백 일 아니라 천 일을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애들은 이탈이 되고 가정이 파괴가 오고 그런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중요하고 법당에 자주는 나가되 끈질기게 그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구가 뭐 백 일만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 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겠네요. 한날 한시, 일분 일초도 떠나지 않게 되는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대로, 여여하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여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래가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부부가 싸우더라도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에서 불화증이 일어나면 '어유, 나한테 그래봐야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보자. 저러다가 큰 코 다치지.'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다 되돌려놓고 '주인공은 둘이 아니야. 전구는 이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하나이듯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떻게 돌이겠나. 전력을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할 뿐이지 어떻게 전력이 따로따로 있는가.' 하고 관해야 합니다. 애들에게도 그렇고 어른에게도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한다면 그냥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헌쇠들이 모두 들어가서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지켜보고 관한다면 바로 용광로에다가 헌 것들을 다 넣는 것이나 같습니다. 넣는 작업만 하면 재생이 되니 자동적이죠.

모든 거는 그렇게, 아무리 자기한테 악하게 하고 아무리 죽일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맡기고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상대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을 해주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저 상대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내 탓이 아니겠는가' 하고 돌린다면 나에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쪽의 전구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돼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들이 서로가 밝아서, 한 사람이 밝게 쓰니까 다른 한 사람마저 밝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데, 아이구, 내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참회를 하고 돌려놓는다면 다시금 마음을 밝게 가지고 둘이 정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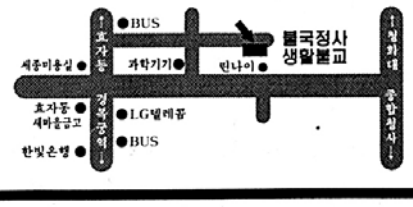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귀 불국정사 생활불교

여러 불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불자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기회에 인연을 맺어 보십시오.
제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14년전입니다.
전태중 구인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인연을 맺은 날부터 3개월이 되면서 저는 마음과 행동이 저도 모르게 바뀌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니라 한제에 민 국민의 질병과 성인병을 물과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이어 저는 한제에 종로구 창성동 122-19호 생활불교 불국정사를 개원하였습니다. 크게는 수행이시는 큰신 스님들을 위하고 또한 불자수행자를 위하고 질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각각 인체에 맞추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요.
지와 인연이 있는 불자님들과 불자님이 아니신 분들도 한번쯤 저희 음식을 접수어 보십시오.
저희 불국정사에서는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생활의 지혜와 음식에 관하여 강의가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참석 하시어 건강음식에 관하여 꼭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제 질병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불국정사에 오셔서 인체에 맞춘 물과 음식으로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은 김치와 밀반찬 등이나 각 가정에서 원하신다면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의 지혜를 관음정진중에서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어 한제 질병에 고통받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만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법 명 금강석 (곽정순) 합장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22-19호 3층)
상담전화 02)736-3091 핸 드 폰 011)9731-7989



특히, 수행하시면서 쉬 피로를 느끼실 때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엑기스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허약하신분들 특히,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민물장어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덩어리이면서 항암효과 피부미용
노화방지 시력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D, E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천식 악성 간염 위염
폐결핵 만성결핵 각종암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피로
노화방지 빈혈 허약체질에 약리효과가 있습니다.

「정진하는 맘으로 6시간이상 정성껏 다렸습니다」
- 지운거사 -

※ 택배도 가능(1개월분 이상)

● 민물장어 6kg + 동충하초 (택배비 포함)
● 민물장어 6kg + 십전대보탕 (택배비 포함)

동천민물장어

연락처 051)643-8592 / 019)515-7239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영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몰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앞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튜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명법, 12지료점 치료법.
급만성 질환에 대한 원격치료법, 동식물 치료법.
약물 음식물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환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를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관 절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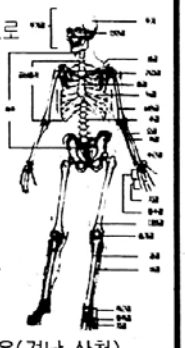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빨리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